

실천의 계기된 '땀의 현장'

기자논단

하계 농촌활동 평가

지금도 진득한 논밭과 고단했던 평가시간, 아저씨가 부여주던 막걸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의 향토별에서 농촌활동이 벌어졌다.

항상 그랬듯이 정부의 압력과 관을 동원한 농활거부속에서도 서울 8백여명, 수원캠퍼스4백여명의 학생들은 각각 순장과 평택에서 무사히 농촌활동을 끝마쳤다.

처음에는 농촌봉사활동으로 봉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농활이 이제는 농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농학연대의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해왔다.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인 농지 소유상한제 폐지가 9월 국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적인 농업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활동에 대한 자세를 되돌아 보려고 한다.

농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의 실정과 상황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마을을 바꾸어

서 간다는지 처음 들어가는 마을일수록 사전준

비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

또한, 간파하기 쉬운점이 농민

이나 학생 한쪽만의 지원, 활동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

에서와 같이 준비와 목표가 없는

농활은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끝

나거나 농민에게 너무 어렵고 거

부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의 현장에서 학생은 땀흘림

과 생산자적 삶의 모습을 배우고

농민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수없이 강조가 되는 이야기이겠

지만 실제로 후속활동이 잘 실행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

지의 후속활동들이 현지왕래 혹

은 대중매체의 초청 등 자극하

의 배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마

여성농민만으로 구분되어 행해지

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 학생

반은 잘 진행되는데 반해서 분반

활동의 핵심인 청·장년반의 활동

은 지진한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청장년을 따로 떼어 모

임을 갖기도 하지만 일성적인(?)

농민이 계시지 않는한 모임이 힘

들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반의 경

우는 대개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

남은 청년은 손꼽을 정도여서 모

임자체가 힘들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

지 못하고, 몇사람의 농민이 참여

하더라도 분반활동을 꾸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번 농

활은 학생들이 농민을 너무 의식

한 탓에 소극적으로 활동에 입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적극적인

준비자세와 후속작업에 대한 고

민이 계속되어 갔다.

천하의 근본이 농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밑에서 수탈을 강요당하며

그때마다 농민이 일어났었고, 현

제도 변혁운동에서 농민운동의

역할은 분명해지고 있다.

강압적인 쌀수

입 개방, UR, 그

리고 농발대로 가

장한 농업개혁정

책으로 위기에 처

한 농촌을 보며

농활이 그들의 현실과 아픔을 담

아내고, 농민과 학생이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참살의 모습을 배우

는 장이 되어야 할것이다.

(송보영 기자)

독자수필 중국연수기

방학이라는 시간동안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고 가슴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름방학동안 해외연수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기대했던것은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독특한 사회주의라는 노선을 걷고 있는 점이었다.

특히 동구권의 변화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외중에서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한 중국이 조심스레 개방이 문을 열고 있기 때

문이다. 예전의 방문팀과는 달리 인천에서 출발한 배를 탄 우리일행은 꼬박 18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중국의 위대한 항구에 도착했다.

위해부터 시작된 우리의 코스는 북경을 거쳐 동북부지방인 장춘과 연길이라는 제한된 시간속에서

중국을 일부본이라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연수라는 것보다는 관광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딱딱한 일정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의 여행이었지만 그만큼 사전에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단시일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이 일만큼 도움을 주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맞은 도시인 북경의 인상을 건강함이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의 구별될 것이 별로 없었지만 거리를 뒤덮는 자전거의 행렬과 넓게 뿔린 도로가 특징적이었

다. 오밀조밀하고 세련된 맛이 없는 대신 무뚝뚝하고 소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거리의 사람들도 대개 순박하고 때론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밤11시쯤문을 닫는 야시장의 풍경·그리고 도시의 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녹지와 공원들에서 는 사회주의적인 계획행정을 엿볼수 있었다.

장춘을 거쳐 연길까지 가는 길

에는 많은 조선족을 만날수 있었

다. 한가지 그들이 바라보는 적대

감과 편견없는 남한과 북한에 대

한 시각이 부러웠다.

연길에서 꼬박 6시간을 걸려 도착한 백두산을 단지 백두산이

있기에 우리 일행을 설레게 했

다. 새벽에 오른 백두산을 변화무

쌍한 기후 탓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조국의 한끝에 있다는 건

뽀듯했다.

열흘간 보았던 피상적이고 겉모습의 중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한것 특히 중국의 학생들과 만나보지 못한것이 아쉬웠지만 내가 만난 중국인 그간의 조선족 그리고 그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부러웠던 땅굴의 지평선. 넓은 땅과 12억의 사람들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모습을 보며 만리장성에서 느꼈던 중국인을 생각했다.

'우공이산'의 속담속에 나오는 미천사람처럼급한데 노인, 다른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만리장성 축조 그리고 근대의 대장정에 이르는 이야기는 중국인이 아니고는 힘들거라고 생각해보았다.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를 위한 변화의 바람을 들리는 그들을 보며 이땅의 현실을 돌아본다.

박 민 영 (원지력·2)

거리의 자전거 행렬, 소박함 느껴 개방통한 조심스런 변화 시도

독자투고 관념의 벽 허문 천막

방중 농활현장 체험기

농활 경험도 이번 여름농활까지 다섯번이었다. 이전 첫 농활때 가졌던 호기심이나 동경심보다는 고향에 가는것 같은 설렘과 한 편으로 무엇부끄러움을 준비해 갈까 하는 고민들이 앞섰다.

유동면 외이리, 처음 농활을 수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행하는 마을이고, 면소재지라 나

름대로 한계들이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 바 아니지만 "농활

수행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애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리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리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리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리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지는 날이면 웬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처량해 지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감성들은 비가

내리는 천막을 막기 위해 여

름이 끼치면서 하루의 생활이 까

마득해 지기도 하였다. 비가 쏟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면농민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인지 우리들의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마을 이장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면농민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인지 우리들의 직접적

인 싸움보다는 마을 이장과 농민회

분들의 덕택으로 우리의 생활은 6일째 되는 밤에 어렵게 회관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

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이튿날

마을회관에서 기

거를 하며 농활

을 수행하였고

마을잔치는 정말

로 거대하게 치루고 싶었기에 우리

한 아침부터 몇명에서 잔치준비를

를 했다. 마을 아주머니께서 우리

의 요구를 거부하고 준비해주신

때문에 딱은 싸가지고 올 정도로

많았고 아주머니들이 둘러앉아

서 부추전, 호박전을 부쳐 줄때

는 정말 입맛에 앉은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면서 부쳐놓은

전을 집어먹기도 하였다. 비가 왔

지만 이렇게 준비된 마을잔치는

아동반의 공연을 시작으로 할머니

들의 흥겨운 춤과 노래소리로

어우러져 풍성하기 그지 없었다.

마지막날 잠도 못잔채 눈을 비

비며 청소를 끝내고 외이리를 떠

나올때 8일간의 우리의 생활이

마리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려졌고

배웅나오신 마을 아주머니들과는

눈을 글썽한 눈으로 더욱 풍성하

고 알차게 될 가을을 기억할 수

있었다.

김 영 숙 (간호·2)

朔風

민주주의 향한 민중의 단결된 의지

8월18일-소련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8월21일-소련의 쿠데타가 실패했다.

불과 나흘 동안에 일어났던 국제적

긴장과 안도.

아무리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급변한

다고는 하지만 소련의 이번 쿠데타는

'변개불에 동북아 먹다' 시작되었고 '용

두사미'격으로 막을 내렸다.

한반도 쿠데타의 실패를 경험해 보

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솔직히 이번 쿠

데타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새우'?

마냥 싱겁게만 느껴진다.

쿠데타의 성공은 권력의 장악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지만,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조선조를 열었던 태조는 전형적인

군사쿠데타로 새 왕조의 시조가 되었

다. 얼마뒤 세조는 자신의 조카를 축

출하고 임금에 되었다. 이후 조선조는

여러 차례의 정권 전복위기를 맞았고

사회·정변 등 일련의 '난'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목숨이 사라진 것은 불

론이다.

최근의 비근한 예를 들면 비교적 멀

게는 6.25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분단

이란 특성상 북에서는 '민족해방'·조국

통일 투쟁'으로 기록 되었고 남에서는

'김일성의 난'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교적 가깝게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5.16을 예로 들 수 있다. 5.16

물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쿠데타는 아주 우습게 전개 되

도 한다.

'죽워서 개를 준경우'가 되겠다.

소련의 쿠데타가 끝난 이후 反쿠데

타의 구심적이었던 엘친의 정치적 비

중이 고르비의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뛰어 오르자 혹자는 우스개 소리로 "죽

워서 개 준것 아니냐"고 한다. 물론

소련 쿠데타의 주동세력은 이말을 더

욱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나라도 불행하게 '죽워서 개를

주는 쿠데타'를 경험한 적이 있다. 박

정권을 몰락시킨 직접적 계기로 작용

했던 김재규는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

지만 혼란의 정국 속에서 줄을 잘

쥔(?)전두환 씨는 5공화국의 문을 열

고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올랐다.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하지만 소련의 그결과와는 절적으로

다르다. 엘친은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꿈과 희망을 한몸에 받았지만 우

리의 경우는 4천만의 지지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않았다.

요즘 동문 소설가 고원정씨의 '최후

의 계엄령'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정치사나리오인 이 소설은 92년 대

통령선거에서의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다.

소련의 쿠데타를 바라보며 공산주의

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승리 운운에 앞

서 민중의 단결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민중과 정치권력은 더이상 '땀